

公과私



盧 在 植

〈原子力安全센터 首席專門委員〉

세상의 많은 말 가운데 공과 私를 分別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 만큼 자주 쓰이는 말도 없을 성 싶다. 국민학교 때부터 듣기 시작하는 이 교훈적 표현은 고등학교와 대학교 재학기간에도 귀가 따가울 정도로 듣는 말이며 또 사회에 진출한 다음에는 더욱 강조되고 자주 인용되는 말이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의 훈시나 윗분의 말씀중에 이 말이 계속 심심치 않게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 말을 實踐에 옮김에 있어서 만족할 만한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리라!

얼마전 어떤 짓곳은 한 영국친구가 회사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서류꽂이용 클립의 一生을 追跡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결과는 公的目的으로 쓰이는 경우가 半에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경우 과연 가난해서 私의用途로 클립을 썼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어쨌든 문제점을 노출시킨 海外話題欄이었다고 기억된다.

한편 오늘날의 기술사회는 날로 發展하는

高度의 知識을 하루빨리 터득토록 강요(?)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새롭고 보다 높은水準의 지식과 기술을 남달리 먼저 터득해야만 소속 조직사회에서 認定받게 되고 또 出世하는데 결정적 계기로 轉用할 수 있다고 믿는 풍조가 확산되고 있는 것 같다.

그 결과 學士出身의 職場人은 碩士課程을 밟고 싶어하게 되며 또 碩士學位所持者인 立場에서는 博士學位를 탐내게 되는 것이 요즘의 風土인 것 같다. 물론 學問에 대한 強烈的 慾求是 가상하다고 보나 學問自體에 대한 探究心보다는 出世手段으로서의 學位取得試圖일 경우 개운치는 못한 것이다.

하긴 오늘날의 우리 社會가 젊은 世代로 하여금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게끔 作用하고 있다는 점도 못마땅하긴 하다. 즉 實績이나 實力보다는 學位를 優先시키는 制度的 裝置自體가 문제를 잉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한 조직사회의 구성요소로서의 公的인 自己向上보다는 自己自身の 將來에 더 執着한 私的慾求를 더 강하게 反映시키고 있으니 할 말을 못 찾는다. 특히 이 경우 勉學의 특례마저 베풀어주는 所屬조직사회에 대한 所屬感이나 義務感마저 잃고 오히려 자기직장을 學位取得用 架橋로 삼는 양태족도 있으니 딱하기만 하다.

한편 公的組織社會에서 同門이나 同窓이라서 私를 公보다 앞세우는 경우 또한 보기 흉한 꼴이다. 특히 이 部類에 속하는 가장 못된 현상은 客觀성을 잃은 偏派의이며 不公正한 人事管理문제이다. 或者는 사람이 하는 일이니 그럴수도 있지 않겠느냐며 道通한듯 넘겨버리는 大凡한 사람도 있지만 名譽慾이 가장 강한 動物이 人間이기 때문에 人事管理만은 무엇보다도 公正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본다. “多少 無理한 것 같은데...?” 하고 꺼리면서도 私를 爲先시켜 權限을 濫用할 경우 그 하나의 私 때문에 수 많은 公

이 죽게 되고 마침내는 그 조직사회의 기틀이 흔들리게 됨을 잊어서는 안된다. 바꾸어 말하면 惡貨가 良貨를 구축한다는 그레삼法則에서 貨幣라는 用語가 人間이라는 用語로 代置된 社會가 造成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결국 公과 私는 人間關係에 있어서 항상 共存하면서 問題를 빚는 것인데 그것을 分明히 區分할 줄 아는 人格의 形成만이 問題解決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본다.

요즈음에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지만 얼마전까지만 해도 有能하다해서 海外駐在要員으로 選拔되어 몇年 海外근무를 하고 돌아와 보면 알아야 할 자리마저 빼앗기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참으로 한심스런 處事라고 아니할 수 없다.

여기서 가까운 이웃나라의 예를 하나 들어 비교해보기로 한다. 그 나라의 의무성도 다른 나라의 경우처럼 매년 명문대학의 엘리트들이 뽑혀 들어오기 마련인데, 이때 경제계나 政界의 巨物들중 未婚인 딸을 갖고 있는 人士들이 長·次官에 사위감을 부탁한다는 것이요 또 일단 사위를 맞게 되면 本人의 適性에 알맞는 外國에 修習次 外遊시키는 것이 常例이란다. 이때 그 젊은 新婚夫婦의 修習期間中 活動費는 丈人이 전적으로 支援되 그 나라에서 가장 좋은 名門大學의 外交·政治學科 聽講生으로 編入시켜 그 나라를 알게끔 努力시킨다는 얘기였다. 즉 學位를 取得키 위한 留學이 아니라 장차 그 나라를 짊어질 有能한 학생들과 폭넓게 親交케 하여 그들의 個性, 버릇, 食性 등을 속속들이 알게 하고 또 그 나라의 국민성이 어떤 바탕에서 유지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主目的인 이른바 遊學인 셈이다.

바로 이 遊學期間中 깊이 사귀어 두었던 엘리트층 훗날 주요 직책에 보직되었을 때의 活用價値가 너무나 크기때문에 私財를 털어 國家의 將來라는 公을 支援하는데 아까

울 것이 없다는 얘기였다. 이 너무나 對照的인 喜悲雙曲線을 우리가 어떻게 理解해야 할런지?

이 처럼 우리들 주위에서 술한 문제를 낳고 있는 “公과 私” 문제는 物質的인 것도 있거니와 精神的인 것도 있다. 또 이 두가지가 複合的으로 된 것도 있다. 다만 人間の 慾望이 善을 바탕으로 형성되는가 또는 惡이나 不正의 誘惑을 뿌리치지 못한 채 演出되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結果를 自招하기 마련이다.

1963년부터 국제원자력기구의 기술자문단을 초청해서 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과 부지조사 등에 관한 자문을 받은 우리가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상업발전기에 들어 간 것이 1978년 4월29일이었다. 무려 15년이상의 오랜 시간이 흘렀고 또 술한 노력을 기울인 다음 비로소 핵에너지의 動力化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候補敷地의 選定이라는 初期段階의 일부터 시작해서 豫備安全性分析報告書, 設計 및 工事方法申告書 그리고 最終安全性分析報告書の 심사 등 敷地의 承認, 建設許可 및 運營許可과정에서 술한 문제점이 있었다고 본다. 規制當局은 規制當局대로 또 建設運營主體는 그들 나름대로 각기 적지않은 隘路를 극복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고 본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도 公과 私가 分明히 區分된 슬기와 意志가 內在한 것이었다면 兩端間에 바람직한 立場이고 勸獎할만한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原子力發電의 安全性이 강하게 요구되는 오늘날 우리에게서 私보다 公을 더 尊貴하게 여기며 行動하는 길만이 우리나라 原子力利用事業을 安全하게 成就하는 지름길이며 국가에 보답하는 길이라 믿으며 이 글을 맺는 바이다.